

사행성·비리 논란에 직접 입 연 게임위 “게임산업법 준수”

기자간담회 열고 논란 해명나서
투명성 강화, 소통 채널 구축 등
게임이용자 소통강화방안 마련

각종 논란의혹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면 쇄신에 나선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수도권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분야, 13개 세부실천과제를 담은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과 전문성 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에는 김규철 위원장을 비롯해 최종경 사무국장, 이상현 게임물관리본부장,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박한흠 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게임위는 구체적으로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세부실천과제를 약속했다.

게임커뮤니티 및 인터넷 방송 운영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해명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규철 위원장

을 대상으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연령등급별 영상 및 이지미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이용자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편을 추진한다. 내년 2월까지 게임위 홈페이지에 게임이용자들의 정책 제안 코너도 신설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또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던 경우

예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이 아닌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날 게임위 측은 최근 논란이 됐던 ‘블루아카이브’의 등급상향 게임물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당시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 등이 게임물에 포함돼 있지 않아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며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게임을 모니터링한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고, 이에 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 제8조를 근거로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상향 대상 통보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혔다”며 “향후 제작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바다신2’ 등급분류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게임위 측은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는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며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민감사청구가 진행된 게임물사후관리시스템의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회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게임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게임 이용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게임이용자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CVC 행위제한 규정 구체화

공정위 “중간지주회사 CVC 소유 안돼”

CVC 사외편취 금지 규제 총수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

다른 지주회사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없다. 총수 일가의 사외편취를 막기 위한 CVC의 행위제한 규정은 ‘자연인’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10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CVC는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말하며, 이번 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개정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제한적인 보유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은 CVC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라고 명시 했다. 중간지주회사가 지주회사인 동시에 자회사의 지위를 갖는 만큼 CV를 소유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CV를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적용시점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을,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으로 규정했다.

또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200%)’ 등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총수일가 사외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자금조달이나 투자제한, 매각금지 등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지침은 이밖에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을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지주회사 지주비율 50% (설립·전환 의결일로부터 2년간 3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CVC 보유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현대百그룹, 승진 30명 등 정기임원 인사

민왕일 전무, 부사장 승진

현대백화점그룹은 10일 부사장 4명, 전무 6명을 포함해 승진 30명, 전보 22명 등 총 52명에 대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임원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인사에서 민왕일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장(전무·사진)가 부사장으로, 윤영식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경영전략실장(전무)
가 같은 본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현상·현대그린푸드 상품본부장(전무)도 부사장으로, 박민희 현대리바트 영업본부장(전무)가 부사장이 됐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가 전원 유임되는 안정

기조 속에서 성장과 변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 임원 인사에서 신규 사장 승진자는 없으나, 인사 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전문성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젊은 인재를 대거 중용해, 차세대 리더를 각 계열사의 핵심 포지션에 전진 배치한 게 특징”이라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하고 핵심 경쟁력을 극대화해 그룹의 미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전략본부장 임명

갤러리아 신사업·기획·인사 총괄



본부 체재로 재편됐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을 담당했던 신사업전략실이 기획·인사 등과 유기적인 체계 필요성으로 전략본부로 통합되면서 김동선 전략본부장이 맡게 됐다.

김 본부장은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및 프리미엄 콘텐츠 발굴 등의 기준 업무와 더불어 갤러리아 경영 전반에 참여해 조직 내에서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갤러리아 김동선 전략본부장은 현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전략실장 전무를 겸임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美 매출 138% ↑

3분기 매출 호조 한몫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누적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세노바메이트가 견인한 실적도 급성장세를 이어갔다.

SK바이오팜은 지난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88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271% 증가한 규모다. 주요 제품의 미국 내 지속적인 성장과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신규 시장 진출 및 확대가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영업손실은 제품 매출과 용역 매출 모두 높은 증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07억원 축소된 92억원으로 개선하여 손실 폭을 크게 줄였다.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는 올해 3분기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474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누적 매출은 119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환자에게 처방된 총 처방 수(TRx)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12% 늘어난 약 4만5000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최초로 월간 처방 수 1만5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경쟁 제품들의 미국 출시 29개월 차 처방 수 평균의 약 1.8배 수준이다.

SK바이오팜은 미국 내 엑스코프리의 영업력 강화를 주된 목표로 삼고 의료 전문가와 환자 대상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회사측은 대면 영업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미국 현지 영업·마케팅 조직 재정비를 통해 영업 효율화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